

A Case Study of School Safety Practices in France and Japan

Kyung Hwoi Kim[#], Hyun Joo Lee⁺, Day Young Oh, Josh Sung Chang Ryou

School Safety Research Institute, Sungshin University, 34da-gil Bomun-ro, Seongbuk-gu, Seoul, Korea

Abstract

The article examines school safety practices in France and Japan in order to seek insightful information for school safety policy in Korea. School safety training in France characterizes: 1)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development of school safety program is open to teachers, and 2) community safety agencies such as fire stations help school to operate the program. School safety education for students in Japan is featured as follows: 1) schools train students to prepare natural disasters regularly and tightly, 2) school safety manuals are well prepared and tailored to unique risks in each school. The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he adoption of the practices in France and Japan to the Korean educational context include the scope of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about school safety and the revision of safety manuals according to disaster characteristics.

Key words: safety training, school safety promotion, school safety in France, disaster manual in Japan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해외의 우수 사례를 모방 및 차용하는 정책이전(policy transfer)과 차용(policy borrowing)을 통해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역사·문화적 배경에 근소한 차이를 넘어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 집중함으로써, 서구의 모범적인 정책과 행정을 벤치마킹하여 현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Steiner-Khamsi, 2014; Sung, 2010). 국제적 시야에서 바라볼 때, 교육 정책과 제도 설계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의 우수사례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의 교육 환경에 맞게 재구조화 된 경우, 문제 해결의 자발적 차용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적 요소가 가미될 수 있다. 또한, 국제적 표준에 맞춘 교육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데, 이는 해외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화의 진전에 맞추어 국경을 넘나드는 교육서비스의 개발로 그 통용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해외 사례연구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통한 정당성의 논리를 부여하여, '외부화(externalization) 담론'을 통해 교육 제도와 정책이 수립되어가는 단계 속에서 다

[#] The 1st author: Kyung Hwoi Kim, Tel. +82-2-920-7161, e-mail. kimkh1019@sungshin.ac.kr

⁺ Corresponding author: Hyun Joo Lee, Tel. +82-2-920-2158, e-mail. 4creativelee@sungshin.ac.kr

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정당성 확보에 용이하다.

한편, 학교안전 분야에서 위와 같은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구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미비한 수준이다.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 분야의 해외 사례 연구는 단위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법과 제도와 같은 거시적 차원을 표면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학교 환경에서의 세부적 조건에서의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단순히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쳤던 대다수의 연구만으로는 우리나라 제도와 해외 사례에서 보이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안전 영역은 국가마다 안전 분야에 대한 주요 이슈가 상이하고, 학교급과 학제별로 그 포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정주제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별하여 심층 분석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각 국가가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는 안전교육 분야의 주제를 우리나라 안전교육 현장의 상황적 배경을 고려하여, 교훈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비교연구의 유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 앞서 학교안전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프랑스와 일본의 모범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학교안전교육의 시사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두 사례를 바탕으로 식별원리(Identification

Principle)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규명하고, 효과적인 학교 안전교육의 실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프랑스의 ‘안전교육 전문 교사 양성’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전문교사 연수 제도를 통해 안전교육 교사 교육제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 일본의 ‘학생의 재난대비 훈련’과 ‘학교안전 매뉴얼’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 분석

국내의 정부출연연구소의 안전교육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였다. 이 밖에 해외에서 출판된 주요 서적, 외국 정부의 정책보고서, 외국 정부의 웹사이트에 탑재된 주요 제도와 관련 정보 등을 통해 해외 학교안전 우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문헌분석에서 가장 중점적인 자료로 활용된 것은 현지방문에서 획득한 자료로, 이를 집중 탐구하여 학교안전의 세부사항을 파악하였다.

2) 현지방문 및 실태 조사 연구

2017년 2월 5일부터 19일까지 연구진이 프랑스 교육부, OECD를 현지 방문하여 참여관찰 및 관계자와 면담을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을 위해 연구진은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질문을 구성하였고, 질

Table 1. List of participants

Visiting Organizations	Name	Department and Position
OECD Headquarters	A	OECD LEEP Project Director
	B	OECD Higher Education and Education Analyst
	C	
French Ministry of Education	D	Board Member of Educational Institution Entrance Committee
	E	Building Safety and Fire Commission Investigator
	F	National Education Agency Safety and Access Control Personnel
	G	
	H	
	I	
	J	Korean Education Director
K	French Interpreter	

Table 2. Expert list

Institute	Status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Bureau	Legislative Inspector(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egislative Inspector(Higher Educatio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chool Safety Team Leader
W University	Professor
X middle School	Principal
Y Elementary School	Principal

문지는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되어 면담 대상자에게 사전 배포하였다. 면담은 면담 대상자의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질문지 중 해당 분야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답이 이루어지는 반구조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학교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교민(학생, 학부모)과 주재원 기자, 파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의 명단은 <Table 1>과 같다.

3) 전문가 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

학교안전 전문가로 토론회(2017년 8월)를 거쳐 연구 내용에 관한 자문을 받아 내용의 충실도를 기하였다. 아울러 학교 관리자의 자문을 거쳐 해당 주제에 관한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학교안전 및 안전교육과 관련된 해외 선진사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의 해외교육동향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학교안전의 범위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법과 제도 및 지원체계에 관해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연구를 살펴보고 기존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Jang(2011)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국가가 나서서 재난관리법과 자연대책법을 합친 재해대책기본법등 관련법을 제정하여

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응급대책 등 종합적인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학교 수준에서는 교과와 사회의 커뮤니티 곳곳에서 다양한 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철저하고 세부적인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Jo(2015)는 미국 버지니아 주와 프랑스의 학교안전 교육 관련 법령과 정책, 그리고 안전교육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미국 버지니아 주와 프랑스의 경우 법률로서 안전교육 관련 규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학교안전교육의 목표와 기준 및 안전교육 과정에서 교육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과 위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교안전교육을 중등 학교 졸업시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 주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수칙 매뉴얼이 단위 학교마다 체험과 실제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보유·구비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관련단체와 기관들은 학교의 안전교육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학년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연령 및 발달단계에 따라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고, 소화해야만 하는 적합한 안전교육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Lee(2014)는 안전교육을 중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거나 또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OECD 6 개국(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싱가포르, 미국)의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제도와 안전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우선 일본은, 초·중등학교의 정규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교육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부터 교육법을 통해 초·중등학교에서 위험예방, 구조, 응급처치, 안전 수칙 등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이론중심이 아닌 체험과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교육과정의 교사들의 재량에 달려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교육과정의 운영이 장려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중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안전교육 합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안전교육 수료 여부는 중학교 졸업자격 시험에 반영되기도 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법과 제도로써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에서는 보건교육의 일부로서 초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사고 방지, 도로 안전, 공공장소 안전, 물 안전, 응급처치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체육 수업 시간을 활용해 교사의 전문적 지식 하에 중점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자전거 교육, 교통과 이동성 교육, 통학, 수학여행, 관리·감독, 응급조치, 체육수업, 소방대책, 학생사고보험과 같이 세부적인 안전사안들에 대해 상세한 법규 및 규정을 가지고 있는 독일 바이에른 주는 학생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을 학교와 학교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심화된 안전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해외사례 연구는 학교 현장과 실제 중심의 사례보다 법령과 제도 등 표면적인 부분에 치중하였다. 이에,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학교안전 관리과 교육이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이에,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선정하고, 해외사례로부터 우리의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선진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해외사례에 대한 법과 제도를 소개하는 표면적 분석을 벗어나 프랑스의 학교안전교육 전문교사 양성과 일본의 재난대비 학생훈련을 심층 분석

하고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며,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Ⅲ. 프랑스의 학교안전교육 전문가

1. 프랑스 학교안전 교육

프랑스는 과거 폭발사고와 화재 등 안전에 관한 사건·사고 등을 겪으며, 학교를 비롯한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위원회가 설립되고 안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이후 학교안전 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던 중, 방화범의 방화로 인한 대규모 화재사건으로 기록되는 1973년 파이용 중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사건으로 학교에서의 안전이 프랑스 교육계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초기에는 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 및 규제에 관심을 쏟으며 국가위원회의 설립으로 각종 학교안전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주도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국가위원회는 1995년 「학교 및 대학 안전 국립 감독원(Observatoire national de la Securite des etablissements scolaires et d'enseignement superieur)」으로 승격되었다. 시설과 같은 외부적 측면에서의 제도 강화와 함께, 2002년 5월부터 모든 학교가 안전 계획(plan particulier de mise en surete, 이하 PPMS)의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단위 학교에 맞는 구체적인 대피 장소와 대피 절차, 그리고 사태 확산 방지(containment of an emergency) 절차 등을 포함한 지침을 계획하였다. 이는 학교 자체와 지역사회가 스스로 학교 안전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고, 제도 내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도 함께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2007년에는 「교육기관의 안전 및 출입 국립 감독원(Observatoire nationale de la securite et de l'accessibilite des etablissements d'enseignement, 이하 감독원)」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고 6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이 중 특히 화재 안전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감독원의

학교안전 담당자는 연구진과의 면담에서 1990년도부터 비공식적으로 시행되던 ‘세잔 계획’이 차츰 개정을 거듭하며 학교 차원에서 중시되는 안전 대책으로 진보되어왔던 과정을 설명하며, 안전의 책임 주체의 명확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1990년에 생긴 세잔 계획은 상당 부분 비공식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학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00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식화되었고, 이후 학교는 교육부 장관령에 따라 PPMS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형사고 시 학교의 안전 대책을 말합니다. 이것을 시초로 2004년에 국민 안전에 대한 현대화 법에 의해 세잔 계획의 상당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시행령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사고 발생 기관이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장은 구조대원들이 오기까지 학생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구조 대피의 책임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지자체장(프레페)입니다.”

2. 프랑스의 대피훈련

2015년 11월 파리과 2016년 7월 니스에서 발생한 프랑스의 테러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학교안전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는 프랑스가 정책 실행의 관리에서부터 운영까지 정부 주도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특히 파리 테러에 이은 니스 테러 사건 이후, 7월 말에는 교육부가 내무부와 초·중·고등학교의 안전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두 주무 부처의 강화된 안전 정책이 시행되었다¹⁾.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지자체마다 안전 담당관을 지명하도록 함. 또한

각 학교장에게 학부모들에게 안전 조치를 알리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함.

- 이와 함께 1년간 세 차례의 안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중 한 번의 훈련은 테러를 대비한 훈련으로 만성질 방학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테러를 대비한 훈련에서 경보는 화재 경보와 다른 소리로 구분될 수 있도록 명시함.
- 학교장들로 하여금 교내 안전이 취약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떨어진 출입구 혹은 노출된 건물 벽면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학교 출입구 감시를 강화하고, 학교 앞 도로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도록 함. 이는 폭탄 경고가 있는 경우, 학교 앞 도로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함임.
- 이 밖에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중학교 4학년 학급에서부터 긴급 상황에 대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모든 학생 대표들은 구조 교육을 받도록 함. 자세한 방법은 새 학기 이전에 안내가 될 예정임.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여전히 학교안전문제가 프랑스 교육계에서 핵심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급작스러운 위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상당수의 인원이 일시에 안전하게 대피하는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대피훈련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훈련은 경보, 대피, 모임, 인원파악, 활동재개, 평가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우선, 경보단계에서 경보가 울린 즉시 건물에서 모두 빠져나가도록 한다. 다음으로, 대피단계에서는 학교 관계자가 대피가 가능한 문을 열어 대피하도록 하고, 문을 이용해 대피가 힘든 경우 창문으

1) 프랑스 교육부 안전 경보 수칙

<http://www.education.gouv.fr/cid85267/consignes-de-securite-applicables-dans-les-etablisements-relevant-du-ministere.html>

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이 때, 장애인들의 대피에 관해 미리 안내해야 하며, 모든 인원의 대피 완료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건물 외부로 나갈 시에는 문을 잠그지 않도록 하며, 건물을 벗어난 후에는 재차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셋째, 모임의 단계에서는 대피했던 인원들이 전부 대피 장소에 모이도록 한다. 넷째, 인원 파악 단계에서는 명단을 이용해 인원파악을 하며, 정확한 허가 없이 대피 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활동 재개 단계에서는 명령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장소로 다시 복귀하도록 한다. 끝으로, 훈련 상황을 평가하며 각 학교와 지역사회가 안전교육 진행과 관련하여 연계·협력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로 마무리 된다.

3. 프랑스의 '교장연수'와 '안전교육사' 제도

프랑스에서는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책임소재는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교육 현장의 중심에 있는 교사와 교장이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며,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사고는 소규모의 사고 발생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안전 수준을 검토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다방면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들이 직접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대책 수립은 수시로 안전관리수칙에 대하여 점검을 받고 또 실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교사 및 직원들의 안전교육 과정은 필수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연수와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 다른 나라에 좋은 모델이 되며, 프로그램 보급을 통하여 영향을 미친바 있다(OECD, 2003).

우선, 프랑스는 School Emergency Standardised Answer in case of Major accident(이하 SESAM)이라

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위기 관리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독 기관이 독립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닌, 다양한 유관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프랑스 재난 전문가 훈련기구(The French Institute of Trainers in Major Risks), 프랑스 환경부(The French Ministry of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프랑스 국립 학교 안전 감독원(The National Observatory for Safety in Schools and Universities) 등이 참여하였다(OECD, 2003).

더불어, 주목할 만 한 점은 교사들을 위한 안전교육 연수가 강제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우선적으로 장려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을 위한 안전교육 연수는 모든 교사가 필수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주일간 숙박하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발적 참여자들을 위한 교원연수의 실시는 교육부가 담당하여 관할 소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연수를 받으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안전교육사 자격 취득과 함께 개별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자격을 부여받는 현장 중심의 자격 취득이 자발성을 높이게 되고, 이러한 모든 연수는 소방서 등 안전 관련기관들의 지원 하에 실시되어 유관 기관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사고 시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최전방에서 책임지게 되는 사람이 바로 '교원'이기 때문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예비교원과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모두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정 상황에 구체적·직접적이며 경험 중심의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실제 역할 놀이(role playing)를 통한 실습 기회의 제공과 둘째, 과학실험실 등 특수 장소에 대한 특수 안전관리 방법의 숙지가 교사 연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실제 재난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대처

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행동력과 관련된 ‘일반기술(general skills)’과 실험실, 체육관 등의 특정 장소에서 각각의 특징을 반영하여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특수기술(specific skills)’ 간의 균형을 맞추는 안전훈련 프로그램 구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OECD, 2003).

IV. 일본의 재난대응 훈련

최근 국내의 포항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학교의 물리적 피해와 이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 등의 교육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 대비 교육 훈련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국제아동기금(UNICE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UNESCO & UNICEF, 2012; World Bank, 2016 & 2017).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의 피해가 아동 교육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1. 일본의 재난 대비훈련

일본은 태풍과 지진 등의 잦은 자연재해를 경험해 온 국가이다. 따라서 일본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방재 활동 방재교육을 실시해왔으며, 다양한 지진 대비 설비 보강 프로젝트 등 재난관리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학교안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내실을 기한 방재교육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 역량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한 과정의 결실인 셈이다.

1) 일본의 학교안전

일본에서 학교안전은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안전교육은 안전학습과 안전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안전교육은 “학생이 스스로의 행

동과 외부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을 제어하고, 스스로 안전하게 행동하거나 타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세부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안전학습은 안전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사고력과 판단력을 향상시켜 안전에 관한 적절한 의사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지도는 안전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안전의 증진에 관한 실천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바람직한 습관 형성을 돕는 과정이다.

안전관리는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관리는 대인관리와 대물관리로 나눌 수 있다. 대인관리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파악하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구급체계 확립, 학교생활과 교외생활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대물관리는 학교 등 시설·설비의 안전 점검과 시설물 관리의 사후조치, 학교환경미화 등을 가리킨다.

학교안전관리는 (1) 학교 환경의 안전관리, (2) 사건·사고, 재해 발생 시의 위기관리, (3) 학교생활의 안전관리, (4) 불심자의 침입 방지에 관한 안전관리, (5) 통학의 안전관리, (6) 자연재해 안전관리, (7) 기타 재해로 인한 안전관리와 같이 7가지로 구분된다(Nam, 2017).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요 정책의 특징은 학교에서의 방재교육이 교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교직원들의 방재 및 위기관리와 관련된 여러 연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교원들은 방재 및 안전교육 관련 지도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단위학교 별로는 방재대응 단계를 고려한 방재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2) 일본 재난대비훈련의 특징²⁾

일본은 재난대비훈련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우수 매뉴얼은 첫째,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각각의 단위 학교가 그

2) 문무과학성 <학교방재 매뉴얼(지진 및 쓰나미 피해) 작성 방법> http://www.mext.go.jp/a_menu/kenko/anzen/1323513.htm

Table 3. Hidsumas Elementary School major safety education

Month	Content
April	Conduct training activities in the event of a fire, staff members and the PTA will identify safety hazards and prepare safety maps
May	Conduct surveys for students and parents
July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classes, PTA safety check
August	Local safety check
September	PTA disaster prevention workshop for earthquake and tsunami consciousness evacuation drill, protector consciousness improvement
October	Earthquake and fire experience classes for all students
January	Disaster prevention classroom and disaster prevention class
February	Conducted disaster prevention workshop
March	Conduct surveys for students and guardians

지역과 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재해 및 학교안전 매뉴얼을 제작하고 꾸준한 시행을 통해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가고 있다.

둘째, 재해발생을 기준으로 발생 전, 진행 중, 발생 후 등 시기 구분에 따라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재해발생 전에는 안전 환경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에는 대응에 대한 반응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 후 위기상황 종료 후에는 학생들의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참여와 일상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사후 위기관리 시스템을 기획·도입하였다.

셋째, 학교 급에 맞춰서 각각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차별화된 안전교육 및 대처방안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응집력 있는 연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학교안전교육 및 상담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섯째, 매뉴얼 개발과 실행의 과정에 대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안전교육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

을 대상으로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2. 재난대비 학생 훈련 : 도쿄 부근 치바(千葉)현 내 학교 사례³⁾

1) 초세이(長生) 촌의 히도츠마츠(一松) 초등학교 학교가 마을의 동부에 위치하여 있고 교내에 해안이 있다. 농업과 어업을 겸업하는 가정이 많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서 학부모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있다. 해안가 부근에 위치하여,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교육목표는 학생들의 방재의식을 제고하여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역량을 발휘시키는 데 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방재의식을 함께 고양시켜 방재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내용에서 핵심으로 삼는 점은 첫째, 아동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재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현 상황에 대한 교육적 처치에 대해 올바르게 분석한다. 둘째, 방재에 관한 강좌와 강연회 등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방재의식 제고를 적극 장려한다. 셋째, 학생의 발달단계별로 적합한 맞춤형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단위의 방재 계몽활동을 실시한다.

2) 마쓰도(松戸)시의 시립 코가네기타(小金北) 초등학교 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대부분은 과거에 논밭이었

3) 치바현 교육위원회 학교안전 홈페이지 <https://www.pref.chiba.lg.jp/kyouiku/anzen/saigai-anzen/index.html>

Table 4. Kita-Kogane Primary School disaster prevention activity

Month	Content
May	Evacuation activities: Train to identify evacuation routes in new classrooms
January	Disaster Prevention Training Session for Parents: Request free cooperation for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t home during the summer vacation
Summer vacation	Disaster prevention training at home through making disaster prevention map and making biscuit
October	Conduct lecture spreading disaster prevention awareness
November	Evacuation training, earthquake experience car training, fire training
February	Disaster prevention experience learning lecture
etc.	Evacuation drills, fire drills: Training in cooperation with local fire departments to raise awareness of disaster prevention for parents

다가 주택이 밀집된 구역으로 개발되면서 지금은 전국에서 모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학교의 재난대비 학생훈련 프로그램인 재난 방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지역의 재난방지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재난방지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양시키도록 한다. 더불어 학생들이 재난방지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재난방지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교육 내용에는 방학 과제로 지역의 재난방지 지도를 만드는 등 구성주의적 학습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건빵 만들기 등 요리를 만들며 불의 사용법과 주의법 등

가정에서의 재난방지 활동을 체득하게 한다. 학교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방서나 지역모임과 연계하여 아동과 더불어 보호자들의 방재의식 및 관심도를 높인다.

3. 재난대비 학교안전 매뉴얼

미야기(宮城)현 교육위원회의 경우 재해, 교통안전, 생활안전(방법 포함) 등 3개 영역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관리, 조직 활동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는 2015년 국내 교육부에서 제시한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에 수록된 영역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지역교육위원회가 문부과학성이 만든 매뉴얼을 토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 매뉴얼을 만들고, 또 각 학교가 교육위원회의 매뉴얼을

Table 5. Miyagi prefecture school safety 3 areas management

	Disaster safety	Traffic safety	Life safety
Safety education	-Safety education in physical education, moral related subjects, comprehensive study time, self-activity time -Class activities, school events, group activities, safety guidance in daily life		
Safety management	-Set the location of the evacuation considering the worst situation, identify evacuation route -Disaster prevention equipment check,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utilization setting -Disaster prevention awareness and activity, investigation of past disaster prevention occurrence situation	-Establishment of school road and safety check -How to use bicycles, motorcycles, cars, etc. -Investigation of traffic safety consciousness and behavior, traffic accident occurrence situation	-Safety check of facilities, equipment, tools, etc. -Decide how to secure school activities such as school activities, school events, group activities, and breaks -Prepared crime prevention measures and urgent countermeasures such as kidnappings and injuries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Organization activity	-Local safety committee for close connection with home and community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for disaster prevention, confirmation of communication method -Safety Education for Parents -Activities related to disaster prevention, traffic safety, and crime prevention in connection with home and community		

※ Source: Miyagi Prefectural Board of Education Safety Manual

Table 6. Miyagi school disaster prevention manual contents(fire response method)

Required training	Specific map contents
Damage Situation Caused by Fire	1) In 2010, the number of fatalities nationwide was 1783, and the number of deaths in Miyagi was 33.
	2) Fire deaths occur most often between 1 am and 6 am.
	3) Fatal deaths occurred in 49% of the total during the four months from December to March.
	4) Cause of death is burn, carbon monoxide poisoning, high suffocation.
	5) 57.9 % of the deaths are aged 61 and over.
Early Evolution Method in Case of Fire	1) What you can do in a fire place is to evacuate, notify, and evolve.
	2) When we found the fire, we shouted, "Fire!"
	3) Do not use water in the event of a fire caused by an oil stove. Be sure to block the air with wet towels, etc.
	4) Bring fire extinguisher and firmly hold nozzle and spray it on fire.
	5) It is difficult to extinguish the fire when it reaches the ceiling level. You should evacuate quickly.

토대로 각 학교의 특징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하였다는 점에 있어 구체성과 세밀함에서 차이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5>와 같다.

학교안전매뉴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 상황에 따라 안전 대응 방안을 학교급 별로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적 지원을 고려하였다. 유·초·중·고 별로 구분해 예상되는 재해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을 자세하게 명시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인지 혹은 고학년인지에 따라서도 그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초등학교급 내에서도 세밀하게 구분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구비하였다. 더불어 학교생활을 수업시간, 특별활동시간, 휴식시간, 청소시간, 급식시간, 방과 후, 외부인 침입, 학교시설 등의 9가지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 맞는 안전사고에 대한 행동 대응을 서술하였다.

둘째, 각 단위학교에서 학교방재매뉴얼을 제작할 때, 참고해야 할 체크리스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은 구체적이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제목에 따라 구체성, 명확성에 대한 체크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여기에는 역할분담의 규정이나 장소, 경로 지도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매뉴얼의 교육 내용은 단순히 체험중심의 활동, 실용 중심의 안전교육이 아닌 이론·지식부터 교육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교육 내용이 더욱 철저하고 구체적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도 내용에 대해서도 순서를 정하여 행동 대응 방안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모두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3개 영역에서 현재 또는 장래에 직면할 안전상의 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와 판단을 하고, 이에 근거해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와 같은 평가지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사고 발생 시 매뉴얼 교육을 통해 배양했던 의사결정과 행동의 연계에 대한 목표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에서 시행되는 안전교육 우수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안전교육과 관련한 국내 교육제도와 학교현장 적용에 주는 시사점을 논구하였다. 프랑스 현지 방문과 실태조사 연구, 그리고 일본의 다수 문헌을 분석하여 각각 '안전교육 전문교사 양성'과, '학생의 재난대비 훈련'의 주제를 통해 안전교육의 교사교육과 학생교육의 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학교안전에 관한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우리의 학교안전교육기능의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프랑스의 ‘교장연수’와 ‘안전교육사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칭)학교안전관리사”로 불리게 되는 국가자격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직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세월호 사고와 판교 테크노벨리 사고 등 대규모 사건·사고를 경험하면서, 관련 기관이 설립되고 이에 맞춘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프랑스 학교안전 정책의 흐름과 한국의 상황이 비슷한 경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 관계자의 꾸준한 훈련이 프랑스 학교안전 교육에서는 매우 중요시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혹은 현지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랑스의 안전교육사 양성 사례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학교안전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 소방서 등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원의 학교안전교육이 단순히 교육부와 단위 학교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있는 지역 내에서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점을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책임소재의 명확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건물소유영역에 따라 책임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임자의 요청 및 지휘 아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한 책임소재의 구분과 명시가 유관기관의 지원을 이끄는 데 큰 동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교 안전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프랑스는 과도한 이론 중심 혹은 경험 중심의 교육적 양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안전교육 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안전교육에서 이론 중심의 일반론과 경험 중심의 특수론 중에서 그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안전교육의 많은 사례 중 이론에만 치우쳐 특수한 상황에 대한 실제 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서, 보다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안전교육사 자격증 과정이 신설될 경우, 프랑스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격적인 자격증 제도 도입 전, 프랑스의 사례를 빌려, 희망하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통한 현장교육을 先 제공하는 과도기적 프로그램의 운영은 자격제도의 효용성 비판을 방어하기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안전관리사는 국가자격증으로서, 자격증 도입 전 기본 자격 취득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체계와 기술적 요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훈련 프로그램에서부터 선발방법까지 세밀하게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자격증 제도의 실질적 시행은 자격증 주관 부처의 선택 문제와 행정적 조정으로 인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과도기적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 취득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적용의 문제에 대하여 저항과 반대를 이겨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시범 적용을 통한 제도적 확립과 빠른 현장 적용은 안전교육에 있어 교원의 역할에 중심점을 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일본의 학교안전대책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학교안전 훈련 사례를 보면, 연중 계획에서 더 세분화하여 월 단위의 주제별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 내용 역시, 이론과 실전 훈련을 병행하며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 평가 부분에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구하면서 교육 내용에 대한 개선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평가 체제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편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 평가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당시 재난의 종류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재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과 학교 중심의 재난 매뉴얼을 구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교육을

총괄하는 문부과학성은 재난 매뉴얼의 표준만 제시하고, 각 학교와 지역사회가 개별 학교 사정에 맞추어 재난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지진 집중 발생 지역이 수렴되고 있고 산, 바다, 도시 등 매우 다양한 지형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단위학교 별로 지역에 맞는 매뉴얼 제작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일본은 안전대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 재난 훈련을 할 때에도 학생뿐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가까운 구성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안전교육을 찾아볼 수 있으나, 소방서와 경찰서 등 매우 한정적인 관공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려 대책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학교안전에 관한 해외 우수사례 연구”의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NRF-2017S1A5B8A02073142).

Reference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Revised the Seven Major Standards for Safety Education in Schools by Development Stage.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Educational and Training Manuals for Each Type of School Disaster.

Jang, Eun Suk. 2011. A Study Regarding Japanese Preventing Educations of Disasters. *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 16(1): 127-136.

Jo, In Sik. 2015.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School Safet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Virginia.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Field Survey Report. 39.

Kim, Kyung Hwoi, Day young Oh, Sung Chang Ryu, and Jae Hoon Jung. 2017. An Analysis of the Best Foreign Cases in School Safety. Sungshin University School Safety Research Institute.

Lee, Deok Nan. 2014. Trends and Implications of Safety Education in Japanese Schools. *The Eduforum*. 254: 28-33.

Nam, Kyung Heui. 2017. School Safety Promotion Section of Japan Disaster Prevention Learning from the Viewpoint of ESD. *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 22(1): 65-85.

OECD. 2003. International Conference School Safety and Security. Draft Summary and Proposals for Further Work.

Steiner-Khamsi, Gita. 2014. Cross-national Policy Borrowing: Understanding Reception and Translation.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34(2): 153-167.

Sung, Youl Kwan. 2010. A Theoretical Discussion on Comprehensive Analytical Framework for Transnational Policy Transfer and Borrowing.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0(2): 1-25.

The World Bank. 2016. Learning from Disaster Simulation Drills in Japan.

The World Bank. 2017. Safer Schools: Making Schools Resilient as Scale.

UNESCO and UNICEF. 2012. Disaster Risk Reduction in School Curricula: Case Studies from Thirty Countries.

Yoo, Byung Yeol. 2016. Safety Education in Japan. *Monthly Education*. 12(10): 154-159.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교육부. 2016.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수정본.

교육부. 2016.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

김경희, 오대영, 류성창, 정재훈. 2017. 학교안전에 관한 해외 우수 사례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학교안전연구소.

남경희. 2017. 일본의 학교 안전 추진과 ESD시점의 방재학습.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2(1): 65-85.

성열관. 2010. 교육정책 전이 및 차용연구의 종합적 분석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비교교육연구*. 20(2): 1-25.

유병열. 2016. 일본 학교의 안전교육. 월간교육 12월호. 10: 154-159.

- 이덕난. 2014. 일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동향 및 시사점. 교육 정책포럼. 254: 28-33.
- 장은숙. 2011. 일본 방재교육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6(1): 127-136.
- 조인식. 2015. 미국 학교안전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버지아주(州)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제39호.
- 미야기현 교육위원회. 2012. 미야기현 학교안전기본지침(みやぎ(宮城) 学校安全基本指針).
- 치바현 교육위원회. 2009. 유비무환(備えあれば 憂いなし).
- 치바현 교육위원회. 2012. 치바현 학교에서의 지진 방재 매뉴얼(千葉 学校における 地震防災マニュアル).
-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 일본 미야기현 교육위원회 학교안전 홈페이지. <https://www.pref.miyagi.jp/soshiki/supoken/anzen.html>.
- 일본 치바현 교육위원회 학교안전 홈페이지. <https://www.pref.chiba.lg.jp/kyouiku/anzen/saigai-anzen/index.html>.
- 프랑스 교육부 교원포털. <http://eduscol.education.fr/cid47599/une-approche-globale.html>.
- 프랑스 교육부 안전경보수칙(Consignes de securite applicables dans les etablissements relevant du 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rche). <http://www.education.gouv.fr/cid85267/consignes-de-securite-applicables-dans-les-etablissements-relevant-du-ministere.html>.
-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education.gouv.fr>.
- 프랑스 법률 홈페이지(Arrete du 13 janvier 2004 portant approbation de dispositions completant et modifiant le reglement de securite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et de panique dans les e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611190>.

Received: Jun. 28, 2018 / Revised: Jul. 30, 2018 / Accepted: Aug. 10, 2018

프랑스와 일본의 학교안전교육 사례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의 안전교육 전문교사 연수과정과 일본의 재난대응 학생 훈련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교에서 안전교육 담당자를 교사의 자발적 참여와 학교 외 유관기관의 협력을 얻어 양성하고 있다. 모든 교사를 안전교육 전문가로 연수하기보다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층 연수하여 안전교육 담당자로 배치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은 이론과 경험, 일반론과 특수론의 균형을 중요시한다. 한국의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증 도입에 앞서 프랑스처럼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통한 안전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학생대상 재난대응 훈련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은 완성도가 높으면서 학교별 위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된다. 우리도 지역과 학교의 재난특성에 맞춰 재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재난대응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처럼 학교에서 재난대응 계획수립과 훈련에서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안전교육, 학교안전교육, 재난훈련 매뉴얼, 프랑스 학교안전, 일본 학교안전

-
- Profiles **Kyung Hwoi Kim** : He received his B.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D. from University of Iowa.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t Sungshin University and Head of School Safety Research Institute. His areas of research are educational administration, higher education, and school safety(kimkh1019@sungshin.ac.kr).
- Hyun Joo Lee** : She is a research fellow of School Safety Research Institute at Sungshin University(4creativelee@sungshin.ac.kr).
- Day Young Oh** :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 at Gachon University(dayyoung@gachon.ac.kr).
- Josh Sung Chang Ryoo** :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t Kookmin University(ryoo@kookmin.ac.kr).